



| | | | | |
|---|--|----------------|---|---|
|  인천광역시 | | 보 도 자 료 | |  |
| | | 배포일자 | 2023년 9월 19일(화) 총 6매 | |
| 담당 부서 | 국제협력과 | 담 당 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교류팀장 김은진 ☎440-3231 • 담당자 윤선민 ☎440-3232 | |
| 사진(이미지)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 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인차이나포럼 국제컨퍼런스서 한중관계 모색
- 인천·톈진 결연 30년 기념, ‘변화하는 세상, 다시 그리는 한중관계’ 주제로 -
- 유정복 시장, “상생의 미래위한 한·중 도시외교 이끌 것” -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도시 외교, 특히 인천의 도시 외교가 빛을 발하며 한중관계 모색의 장이 열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변화하는 세상, 다시 그리는 한중관계’를 주제로 9월 19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온오프라인으로 ‘2023 인차이나포럼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차이나포럼은 지난 2016년, 중국 교류·비즈니스 선도 도시인 인천의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내고자 민·관·산·학이 함께 창립했다. 매년 포럼 사업을 집성하고 시민들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그 간 인차이나포럼은 글로벌 지식플랫폼이자 한·중 정책대화 채널,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비즈니스 협력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인천시와 주한중국대사관이 공동주최하고, 인천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문화재단, 인천대 중국학술원, 현대중국학회,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가 공동주관했다.

특히 인천-텐진 자매결연 30년을 맞아 열린 이번 회의에는 주펑(朱鵬) 텐진시 부시장을 비롯한 텐진시 고위 공무원·기업인·학자 등 50여명의 외빈을 비롯해 약 400여 명이 현장 참여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난 6월 중국 텐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 참석과 ‘인천-텐진 자매결연 30주년 공동선언문’ 체결 등 도시 외교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진 지방도시가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인천이 글로벌 도시외교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생·창조·소통의 미래지향적 한중관계를 일궈내는데 우리시가 앞장 서, 한중 지방외교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중국대사는 “지방 교류와 우호도시 협력은 한·중 우호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며, 인천은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며 “미래를 향해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초심을 지켜 한중관계를 시대와 함께 발전시켜 양 국민에게 더 좋은 이익이 가도록 하고, 지역의 평화 안정과 발전·번영을 촉진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텐진시를 대표해 참석한 주펑 텐진시 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결연 30년의 인천-텐진 협력을 위해 고위급·시민 교류와 더불어 항만·경제

자유구역 협력을 제안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텐진에서 열리는 세계
항만도시 협력 포럼에 인천 각계 인사를 초청했다.

특별기획으로 진행된 청년대화에서는 청년들이 그리는 새로운 한중관
계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 세션에는 하계방학 기간 진행된 청년 논문 공모전에서 수상한 7개
팀 20명의 한중 대학생이 참여했는데, 논문 공모전에서 ‘높아진 반
중감정에 대한 해결방안: 팝업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한중 청년 교류
공간의 설계’를 주제로 대상을 받은 서울시립대 참가자는 “더 나은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관점과 문해력, 즉 리터러시가 절실
한 때”라며 “인차이나포럼을 통해 한중 청년이 상호이해할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인천연구원과 텐진사회과학원이 함께 연 오후 전문가 세션에서는 유
사한 도시 역사·문화와 발전 경험을 가진 인천-텐진의 협력 과제 발
굴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제1세션에서는 ‘도시 역사 문화 자산을 활용한 미래 구상’을 제2세
션에서는 ‘인천-텐진 혁신 신산업 현황과 협력’을 주제로 텐진사회
과학원, 인천연구원, 중국학술원, 현대중국학회, 중국문제연구소 등 국
내외 전문가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번 국제컨퍼런스에는 시민·기업인·학생이 직접 참여하
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렸다.

인천상공회의소가 주관한 한중 수출상담회에는 텐진시 기업인 20명과
인천 기업인 100명이 참가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닫혔던 한중 교역의

물꼬를 트기 위한 비즈니스 장을 열었다. 인천문화재단은 ‘개항 도시 인천’ 사진전을 열어 참여자에게 문호도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알렸다. 또한 현장에는 인천-텐진 결연30년 기념 전시장이 마련돼 두 도시의 교류 협력 자취와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및 기념품이 전시, 시민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또한 현장에는 퀴즈 부스, 인생네컷, 포토존 등이 마련되어 참여한 시민·학생의 큰 호응을 얻었다.

※ 관련 사진은 행사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미디어’→ ‘포토인천’→‘포토시정’(<https://tv.incheon.go.kr>)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2023 INCHINA FORUM

2023 인차이나포럼 국제컨퍼런스

변화하는 세상,
다시 그리는 한중관계

2023. 9. 19. (화) | 송도컨벤시아 2F 프리미어볼룸

주최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주관 인천연구원
THE INCHEON INSTITUTE

인cheon상공회의소

인천문화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중국학술원
ACADEMY OF CHINESE STUDIES

現代中國學會

중국문제연구소
INSTITUTE OF CHINESE STUDIES

中华人民共和国驻大韩民国大使馆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THE REPUBLIC OF KOREA

QR code: 인차이나포럼

참고

2023 인차이나포럼 국제컨퍼런스 개요

- ☐ 일 시 : 2023. 9. 19(화) 09:30 ~ 17:00
- ☐ 장 소 : 송도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볼룸
- ☐ 주 제 : '변화하는 세상, 다시 그리는 한·중 관계'
- ☐ 주 최 : 인천광역시, 주한중국대사관
- ☐ 주 관 : 인천연구원, 유관 공공기관 및 대학·학술단체 공동주관
- ☐ 주요내용 : 상생·창조·소통의 한중관계를 위한 지식·정책·비즈니스 공론
- ☐ 프로그램 구성(안)

| 행사명 | 시간 | 주요 내용 | | 비고 |
|---|---|---|--|---|
| 개막식 | 09:30 ~ 10:10 | • 내빈소개, 개회선언, 축하 등 | |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주평 텐진시 부시장 등 |
| 기조연설 | 10:10 ~ 10:30 | •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 | | |
| 한중청년대화 | 10:40 ~ 12:00 | • 2023년 제2회 청년 아이디어 논문공모전 수상자 발표·토론 • 주제: 변화하는 세상, 청년이 그리는 한중관계 | | 사회: 이현태 인천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
| 오찬 및 유튜브 상영 | 12:00 ~ 13:30 | • 오찬 • 인차이나포럼 스케치영상 및 주제영상 연속 상영('21년~현재) | | |
| 전문가세션 | 전문가세션 개회식 | | | |
| | 13:30 ~ 14:00 | • 기조발언 및 인사말 | | 중휘빙 텐진사회과학원 원장 민귀식 인차이나포럼조직위원,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 |
| | [Part I] 도시의 역사·문화 자산을 활용한 미래발전 구상 및 협력 | | | 사회: 장호준 한국방송통신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현대중국학회 회장 |
| | 14:00 ~ 15:20 | (발표1) 텐진의 도시재생과 지역발전-역사거리 보호 및 활용 | | 런지둥 텐진사회과학원 역사문화연구소 소장 |
| | | (발표2) 인천 내항 일대 도시재생사업의 경험 | | 조상운 인천연구원 제물포르네상스연구단 단장, 선임연구위원 |
| | | (토론) 텐상란 텐진사회과학원 아태협력연구소 소장 이정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윤중석 서울시립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김지영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 | |
| | [Part II] 인천-텐진의 혁신 신산업의 육성과 협력 과제 | | | 사회: 조형진 인천대 교수, 중국학술원 부원장 |
| | 15:40 ~ 17:00 | (발표1) 인천시 경제산업 동향과 미래 전략 | | 서봉만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 센터장, 연구위원 |
| (발표2) 중국 탄소피크·중립전략 및 텐진 녹색 저탄소 발전 | | 왕휘지 텐진사회과학원 시정연구센터 부소장 | | |
| (토론) 왕리엔 텐진사회과학원 과학연구처 처장 윤석진 인천연구원 글로벌산업연구단 단장, 연구위원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 | | |
| 부대행사 | 09:30 ~ 17:00 | • “개항도시, 인천” 사진전 (인천문화재단) • 인천-텐진 결연기념 전시(사진·기념품 등) • 인차이나포럼·인천일보 공동 연재칼럼 전시 • 퀴즈부스, 인생네컷, 포토존 등 시민참여 공간 | | |
| | 10:40 ~ 17:00 | • 한중 수출상담회 (인천상공회의소) - 인천기업(약 70개사), 텐진기업(약 20개사) | | 1:1상담, 3타임 운영 |